

후두암의 진단과 치료

원자력병원 이비인후-두경부외과
심 윤 상

최근 후두암 치료의 경향은 후두의 기능을 보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. 후두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로 후두 부분적출술이 가능해졌고, 선행화학요법 및 레이저를 이용한 미세현미경수술, 방사선치료의 발전 등에 힘입어 후두기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.

원자력병원 이비인후-두경부외과에서는 1963년 첫 후두암환자를 진단한 이래 2001년까지 3023명의 후두암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해 왔다.

1985년 본원에서 발표한 후두암의 통계를 보면 성문암이 50.8%, 성문상부암 48.5%, 성문하부암 0.8%였고, 병기별로는 1병기 3.8%, 2병기 31.8%, 3병기 30.3%, 4병기 34.1%이었다.

최근 10년간(1992~2001년) 본원에서 후두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한 644명의 환자를 환자기록을 근거로 후향적 분석을 하였다. 성문암이 48.4%, 성문상부암 41.0%, 성문하부암 2.2%, 경성문암 8.3%이었고, 병기별로는 1병기가 24.5%, 2병기 19.1%, 3병기 23.3%, 4병기 33.1%이었다. 1985년에 발표한 통계에 비해 초기 병기에서 후두암이 진단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.

최근 10년간의 추적결과 5년 생존율은 67.8%이고, 부위

별로는 성문암의 5년 생존율이 80.5%, 성문상부암 58.2%, 성문하부암 49.0%, 경성문암 53.0%이었다. 병기별로는 1병기에서 5년 생존율이 87.2%, 2병기에서 79.0%, 3병기에서 70.2%, 4병기에서 47.1%이었다.

1병기에서 방사선치료와 레이저수술간의 성적을 비교해 본 결과, 방사선 치료만 시행한 경우 75.0%의 국소치료율을 보였고, 레이저 수술로는 86.7%의 국소치료율을 보였다.

진행된 3, 4병기의 환자는 363명이었는데, 이중 46명이 항암치료를 받았으며, 항암치료 여부는 생존율에 영향이 없었다. 그러나 항암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군에서는 후두보존율이 127/317로 40.1%인 반면, 항암치료를 시행한 군에서는 22/46으로 71.7%에서 후두를 보존할 수 있었다(Chi-square, Spearmann correlation, $p=0.000$)

과거 후두암의 치료는 생존을 목표로 하여 후두 전적출술이 보편적으로 시행되었으나, 최근에는 생존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여 치료성공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가능한 후두 기능을 보존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경향이다. 현재는 레이저 치료, 부분 적출술, 선행항암 화학요법, 방사선 치료 등 다양한 치료 선택이 가능하므로 보다 많은 연구와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